

전남도지사 선거전 판 커지나...“조기 점화 양상”

출마 공식화 주철현·신정훈 신경전...변수 떠오른 서삼석 출마 여부 관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하마평...국힘·조국혁신당·진보당도 도전장

내년 전남도지사 선거전이 조기에 점화하는 양상이다.

지역을 대표하는 민주당 중진 의원들, 변수로 떠오른 서삼석 의원의 출마 여부, 3선에 도전하는 현 지사, 여기에 정부 고위 관계자와 전 국회의원들까지 하마평에 오르면서 지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에선 원조 진명을 주장하는 주철현 의원(여수갑)이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다. 주 의원은 지난 9월 22일 전남도의회에서 석유화학·철강산업 정상화 등 6대 비전 제시와 함께 “지역의 미래 100년을 책임 질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신정훈 의원(나주·화순)도 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다음 달 8일 전남도의회를 찾아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갖는다. 신 의원은 기자회견 당일 자신의 지역 발전 비전을 제시한다.

선거전에 본격 뛰어들 두 의원은 최근 전남 동부권 소외론을 놓

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신 의원은 주 의원의 동부권 소외론 발언에 대해 “우려했던 지역 갈라치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선동을 중단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주 의원은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인의 책임 방기”라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최고위원이자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의 출마 여부도 관심이다. 직·간접적 출마 선언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 내 각종 여론조사에서 무시할 수 없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현재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 시점에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다’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그가 내년 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면 당헌·당규에 따라 오는 5월 이전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전남 서부권 대표 주자 중 한 명인 그의 선택이 당내 경선 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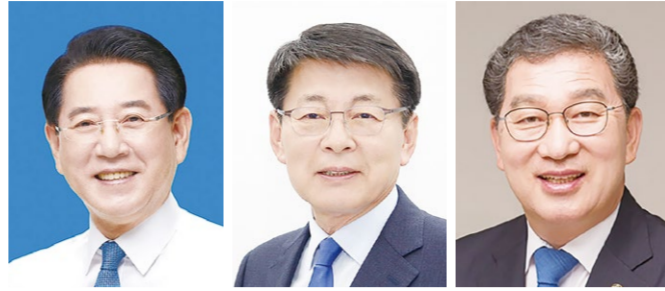
를 크게 흔들 수도 있는 만큼 출마 여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4선의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도 전남 동·서부권을 오가며 입지를 다지고 있다. 김영록 현 지사는 글로벌AI(인공지능)데이터센터·국가AI컴퓨팅센터·인공대양 연구시설 유치 등 굵직한 도정 성과를 토대로 3선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무안 출신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본인은 출마설을 부인하고 있지만, 지역 정치에서는 정치공학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인 김회재 전 의원도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에서는 김화진 전남도당 위원장이 출마한다. 최근 당을 재정비한 조국혁신당에서는 박필순 광양시 지역위원장이, 진보당에서는 김선동 전 국회의원이 출마를 계획하고 있다.

/이정형 기자



첫번째줄 좌측부터 차례대로 김영록 현 전남도지사, 서삼석 의원, 신정훈 의원, 이개호 의원, 주철현 의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국민의힘 김화진 전남도당 위원장, 조국혁신당 박필순 광양시 지역위원장, 진보당 김선동 전 국회의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더불어민주당 곡성지역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곡성군과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민주당 곡성지역위원회 - 곡성군, 당정협의회 개최

수상레포츠 관광단지 조성 지원 등 지역 현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곡성지역위원회와 전남 곡성군이 지난달 2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곡성 지역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곡성군은 수상레포츠 관광단지 조성 지원 등 지역 현안사항 및 제도개선 건의 9건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위원들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사업 등을 비롯한 17건의 곡성군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미래 비전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제22대 제429회 국회 정기회의 바쁜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한 권향엽 위원장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기조와 흐름에 대해 설명하며, “지역 주민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이 항상 감사함을 느낀다”라며, “오늘 논의 되었던 안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주요 지역현안 건의사업에 대해 부가적인 설명을 보태고 당차원의 적극적인 응원을 주문했다.

특히, 수상레포츠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경정장 경주시행 허가 및 결면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공모사업,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거듭 호소하였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당정협의회는 우리 군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엇을 함께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당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곡성지역위원회와 곡성군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군정을 실현하기 위해 앞장설 계획이다.

곡성/이정수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29일 정부·여당을 겨냥해 “그들의 내란 물이 이제 끓어 날 것”이라며 “이제 우리가 반격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경남 김해시 김해진영운동장에서 열린 ‘경남도당 당원 체육대회’에서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정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놓고 “반드시 기각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참석한 당원들을 향해 “옆을 돌아 보라.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 당원동지가 있었다”며 “흠어져 있던 당원동지들이 모이니 이렇게 큰 힘이 있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국민의힘의 지력”이라고 했

‘12·3 비상계엄’ 1년 앞두고 여·야 시각차 분명

국힘 장동혁 대표 “12월 3일 뭉쳐 있어야...반격해야 할 때”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계엄 사과는 커녕 민주당 탓만”

다. 이어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 지방선거 승리하고 정권을 탈환할 수 있다”며 “정권을 탈환하기 위한 우리의 혁명이 이곳에서 오늘 다시 시작하자. 지난 12월 3일 우리는 흠어져 있었다. 이번 12월 3일 우리는 함께 뭉쳐서 한 곳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11월 30일 “국민의힘은 진정 어린 사과를 커녕 ‘계엄이 민주당 탓’이라며 아직도 내란을 옹호하고 있다”며 “내란 동조 세력으로 ‘위헌 정당’이라는 헌법적인 해산뿐만 아니라 국민의 심판으로 정치적인 해산까지 겪게 될 것”이라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

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정의 집회 등 아스팔트 선동을 일삼으며 국정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는 것은 물론 대선에 대한 불복까지 노골화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지방선거까지) 남은 6개월간 이재명 민주당 정부는 (그간의) 대전환을 토대로 대한민국 대도약을 추진하겠다”며 “이제 무능한 국민의힘과 다른 우리의 비전이자 노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지방선거는 무능한 지방 권력에 대한 심판이자 대도약, 대전환의 성과를 평가받고 그 성과를 지역으로 확산하는 선거로 치러질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이 지난달 28일 정부가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국가산단 전력공급을 위한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에 대해 “국가 균형발전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광주·전남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윤석열 정권의 실패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혁신당 광주시당은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을 “자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체계에 역

조국혁신당 광주시당, 용인 송전선로 재검토 촉구

“일방적 희생 강요 안돼...국가균형발전 취지에도 어긋나”

행하고 지역 갈등만 심화시키는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날 출범한 ‘송전선로 반대 광주전남대책위원회’와 연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당은 대책위가 제기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용인 반도체 지원 송전선로 계획이 광주·전남의 생태·환경은 물론 주민 안전과 농업 기반까지 훼손하는 방식으

로 추진돼선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양진 시장위원장은 앞서 10월 국정감사에서 ▲전력·용수공급 불확실성 ▲16GW에 달하는 초대형 전력수요로 인한 송전망 부담 ▲RE100 리스크 ▲분산에너지·균형발전 전략과의 충돌 등을 이유로 용인 반도체산단 추진의 구조적 한계를 집중 지적한 바 있다.

/김병남 기자

김용임 광주시의원, 국힘 동남을 조직위원장 임명

“함께 소통하며 지역문제 고민하는 풀뿌리 정당 되도록 노력”

광주광역시의회 내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인 김용임 의원(사간)이 광주 동남을 조직위원장에 임명됐다.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은 지난달 27일 “김 의원이 중앙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선정과 최고위원회 의결로 광주 동남을 조직위원장으로 정식 임명됐다”고 밝혔다.



다”고 밝혔

다. 한편 동남을 조직위원장 공모에는 이례적으로 3명이 신청해 3과전을

벌였다. 현재 광주지역 당협위원장은 강현구(동남갑), 하현식(서구갑), 김윤(서구을), 강백룡(북구을), 김정현(광산갑), 안태욱(광산을) 등이며, 북구갑 당협위원장은 현재 공석이다.

/이광수 기자

김 **전복** **대파** **울금**

농수산물은 진도것이 최고지라~

진도아리랑물 **진도아리랑** 청정 농수산물 공동브랜드